



양정민 익산시의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돌입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지난 11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범도민 지원위원회 익산시 사무국장으로 위촉되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정민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아젠다 2020’과 올림픽 아젠다 2025+5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올림픽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분산 개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양 의원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 의원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부안군, 농농인재육성 장학금 기부 숭선수범

부안군은 지난 11일 진행한 2025년 부안읍 희망소통대화 행사에서 부안읍 이장협의회(회장 김종민), 부안읍 새마을 부녀회(회장 강병례)가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이장협의회 기부가 7번째며, 부안읍 새마을부녀회도 6번째 기부를 이어갔다는 것.

부안읍 모산마을 주민들도 마을 주민들이 숭선수범해 100만원 기부 행렬에 참여했다.

권익현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뜻깊은 날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최승범 팀장 공감소통관 위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승범 구조구급팀장을 ‘공감소통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감소통관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좁히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고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직원들의 고충을 상급자와 원활하게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승범 공감소통관은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찾아가는 현장읍장실’ 진행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현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15일간 34개 마을을 방문하는 ‘2025 찾아가는 현장읍장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은 이은주 읍장이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현안 공유와 더불어 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현실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시정 홍보,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마을별 추진(예정)사업 설명, 주민 건의사항 경청 답변순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 제13대 출범식

이재선 위원장 취임... 진안군청 강당서 8개 시·군 1만여 조합원으로 결성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재선 위원장 취임식과 제13대 출범식을 지난 11일 가졌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북시군연맹)은 이날 진안군청 3층 강당에서 이재선 위원장 취임 및 제13대 전북시군연맹을 출범시켰다.

전북시군연맹은 지난 2003년 1월 창립해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으로 8개 시·군이 참여, 1만여 조합원으로 결성된 도내 최대의 공무원노조이며, 연맹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합법노조다.

이재선 위원장은 현재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 9~10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29일 전북연맹 위원장 선거에 당선돼 2025년 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이재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의 발전이 전북시군연맹 조합원의 발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민과 조합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와 연대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1만여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욱 진안군의장, 전국각 단위노조위원장, 전북시군연맹 대의원 및 내외 귀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임정욱 고창소방서장,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지난 11일 고창소방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응원 챌린지에 임정욱 고창소방서장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임정욱 고창소방서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고창군민들에게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임정욱 고창소방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충 고창군수산업동조위원장, 서병효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장을 지목했다. O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응원 챌린지에 고창소방서 임정욱 서장 동참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대 반려동물산업학과, 수의치과협회·지역 동물병원과 협약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는 지난 8일~9일 양일간 한국수의치과협회 및 지역 동물병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은 한국수의치과협회 정길준 회장(순천 은누리동물병원 원장)과 한결동물병원(광주) 김재경 원장, 관저종합동물병원(대전) 김홍광 원장, 동물치과병원메이(서울) 권대현 원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이승욱 학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협약 기관은 반려동물의 건강 및 치료 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주대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반려동물 구강건강 관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최신 연구 및 기술을 반영한 전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반려동물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승욱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길준 회장은 “이번 협약이 반려동물 치료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GBCH 챌린지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범도민 캠페인으로 국내 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오늘 2월 말까지 진행 된다.

성홍택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지목을 받고 챌린지에 동참한 조창환 상임이사과 이문식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릴레이에 참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집중 영양관리 방문서비스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제)는 영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60여명을 선정해 2월부터 찾아가는 집중 영양관리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팀(영양사, 방문간호사)이 영양관리 상태가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유무, 신체적 변화 등을 고려한 개인 특색별 영양상담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 손실 및 허약 예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AI-HI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병행 운영한다.

작년 운영 횟수는 총 600회(개인별 10회)음·면 지역까지 확대 운영했으며, 건강 측정(빈혈, 체성분,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국·짜개의 염도측정, 만성질환 관리 교육, 맞춤형 건강·영양 상담을 실시, 건강증진 효과와 영양 결핍에 도움이 되는 균형 영양식 제공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93%의 매우만족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내면 지사협,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려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성근 위명량 공동위원장)는 지난 11일 1월과 2월에 생신을 맞은 관내 취약계층 85세 이상 홀몸 어르신(4가구)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했다.

산내면은 올해 37가정의 생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함께하효! 생신반상 차려드림! 일환으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 케이크, 반찬키트, 과일 등을 마련해 축하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서순창농협, 대설한파 구호물품 전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 서순창농협(조합장 설복환)은 11일 이번 많은 폭설로 인하여 순창군 북쪽면 농암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구호물품 50상자(3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떡갈비, 쌀국수, 핫반 화장지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회관에 전달되었다.

신종철 지부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기 바란다”며 “복지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설복환 조합장은 “이번 구호물품 지원을 통하여 폭설로 고생하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농협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희 기자



정읍시, 금봉동 치매예방교실 본격 운영

정읍시가 지난 11일부터 금봉동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교실을 본격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지원에 나선다. 오는 24일부터는 북부권 산태인 분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예방교실은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운동활동, 원예활동, 공예활동 등이 마련돼 있으며 신체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체험형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뇌 자극 프로그램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포럼 박미란 대표 도라지청 등 기탁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포럼의 박미란 대표가 12일 무주군에 자사에서 생산한 도라지청 2백 박스(1천2백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박미란 대표는 “추운 날씨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 이용자를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라지청을 준비했다”라며 “따뜻하게 드시고 이 겨울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농업회사법인 ㈜포럼(직원 수 18명)은 건강식품(배도라지즙, 홍삼 및 천마 제품 등) 생산 업체로 2024년 설 명절에도 간부들이 모금한 1백만 원과 직접 생산한 배도라지즙 1백 박스를 추석에는 생천미진액 2백 박스(1천 6백만 원)를 기탁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